



성(聖), 청(聽)...

정은/가족치료 연구소장 www.tafamily.net

21 세기는 여성성(Femininity), 상상력(Fiction), 감정(Feeling)으로 대표되는 3F의 시대라고 한다. 3F의 특성은 여성에게 유리한 조건들이긴 하지만 양성성 개발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우리들의 사고기능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사회 적응력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강한 현실지각과 상상력과 책임감, 의지력, 문제를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문제의 맥락을 바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 인간적인 만남이 단단히 뿌리박은 사랑 안에서, 믿음 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과 정성과 열정으로 일관되는 노력의 시간들 속에서 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단단하고, 강인한 삶의 에너지를 창출해내며 이 사회안에서 확고한 가정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의 공격에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안에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을 것” 이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

주체성의 회복은 자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가이없는 중상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문제 앞에서 “홍분하지 않는 것”이고, 가족 안에서, 관

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유연한 힘을 키워가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 맑은 물처럼 평화로움이 어린다.

〈높〉을 거꾸로 놓으면 〈폭〉이 됨을 헤아려 보자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뜻(意)을 헤아려 보자는 것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서는 가슴으로 들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氣)로 온 우주의 소리를 들

을 수 있다면 ‘존재’의 선택이고, 자신을 향한 책임이며, 자신과의 일치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성(聖).청(聽)..

높
↓의(意)
폭

서로의 서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이 높아 보이니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을 터이지만 그 상대방도 자신의 위치가 폭 꺼졌다고 전전공공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바람이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상대방을 받아 들여 하나가 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애로서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 깨어나는 삶. 열린 마음은 자기로부터의 전환을 꿈꾼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하여 돌고 있음에 귀 기울이기. 설레임. 용기있는 삶은 선택이다. 2009.12.1

